

# 육아수당 효과...강진 출생아 두 배 증가

올 상반기 출생아 수 93명

2022년 대비 107% 증가

보편적 복지 현금성 정책 효과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을 펼치고 있는 강진군이 지속적인 출생아 증가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93명으로 이는 2022년 1년 동안 출생아수 93명과 같은 숫자다. 1년 동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 상반기에 벌써 태어난 셈이다.

또 육아수당 시행 연도인 2022년 상반기 출생아 45명과 비교해 2024년 같은 기간에 48명이 늘어 무려 106.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3년 같은 기간 출생아 82명과 비교해도 11

명이 늘어 13.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75%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대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아 증감률은 2022년 0.2%, 2023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강진군의 출생아 증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말 현재 누적 3218명, 20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음이 결과치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과격적인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

로 무려 65.6%가 증가해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현금성 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리모델링 등 교육을 비롯한 주거까지 패키지 묶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강진군 육아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인증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의 대표 관광지 죽녹원.

## 담양 고향사랑기부자 주요 관광지 입장료 무료

10만원 이상 기부자 1년간 혜택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준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긴 안목에서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입장료 감면 규정을 마련했다.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부일로부터 1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공공시설에는 죽녹원(일반 3000원), 소재원(일반 2000원), 메타세쿼이아길(일반 2000

원), 한국대나무박물관(일반 2000원), 가마골 생태공원(일반 2000원), 한재골 수목 정원(일반 2000원) 등이다.

입장료를 감면 받기 위해선 각 공공시설 매표소에서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내 마이페이지 기부내역 현황에서 기부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대전현 한재골 수목정원 물축제 입장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에도 동참하고 입장료 부담없이 행복한 담양 여행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매주 토요일 목사고을시장서 캠크닉 파티 즐겨요”

나주시 10월까지 밤소풍 야시장 캠핑+피크닉 콘셉트 프로그램

나주 대표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에서 매주 토요일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나주시는 캠크닉(캠핑+피크닉)을 콘셉트로 한 야시장 프로그램 '너랑 나랑 밤소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너랑 나랑 밤소풍'은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야시장 특별 이벤트로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야시장은 세 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어 취향에 따라 즐기면 된다. 삼삼오오 모여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BBQ존과 시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미리 설치돼있는 텐트에서 캠핑하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 개인 장비를 직접 설치해 즐기는 캠크닉존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편하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불판 세트(버너, 불판, 집게, 기위)를 유상 대여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 품목 외에 토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먹거리들도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먹거리는 각 테이블에 준비된 메뉴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시장은 날짜가 4일과 9일로 끝나는 장날



지난 6일 개장한 나주목사고을시장 너랑나랑 밤소풍존 모습.

〈나주시 제공〉

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우천 시에도 취소될 수 있다.

상세한 일정은 나주목사고을시장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태 나주시장은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가

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면서 "나주목사고을시장은 물론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너랑 나랑 밤소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성군, 드론 이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약제비 지원 10만원으로 인상

장성군이 드론을 이용한 공동방제 사업을 실시한다.

장성군은 오는 8월 16일까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일반벼 농가에서 드론,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단지별로 농약을 일제 살포하는 공동방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농약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약제비를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1헥타르(ha) 당 약제비와 방제비

를 합산해 19만 원을 지원한다. 방제 작업 추진이 어려운 고령농을 비롯한 농업 현장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공동방제 기간인 8월 16일까지 적기 방제를 통해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공동방제 추진을 위해 읍면 및 지역농협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예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군 '제3기 혁신주니어보드' 발대식

20~30대 공직자 28명으로 구성

수평적 조직 문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젊은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함평군은 지난 8일 함평군 제3기 혁신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

주니어보드는 MZ세대 공직자로 구성된 회의체로 2022년도에 함평군 주니어보드 첫 1기가 출범해 조직문화 개선 등에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제3기 혁신주니어보드는 근무 기간 7년 이내 7급 이하 20~30대 공직자 28명으로 구성됐으며 혁신특강과 토론, 우수사례 벤치마킹,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함평군의 최전선과제인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참신한 시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성과 공유회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와 정책은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니어보드에 전달될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